



재테크 실패 유형과 부의 기원

외환은행 영업부WMC PB팀장 | 정 연 호

600년 만에 찾아온다는 황금돼지해라며 부자 되라고 떠들썩하게 2007년을 맞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올 한해 자신의 재테크를 돌아보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새해에는 보다 나은 투자성과를 기대해 보길 바라며 재테크 실패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부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자.

올해 주식시장의 큰 상승으로 직접투자든 펀드투자든 좋은 수익률을 올린 투자자들이 많은데,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새로운 펀드며 각 매스컴에서 펀드관련 기사가 주요한 기사로 취급되고 있고 올해 들어 주식형펀드가 50조원 가까이 늘어 100조원을 돌파하여 총 펀드 수탁고가 300조원을 넘었으니 그 열풍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고객들이나 지인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펀드(주식)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냐는 것인데, 향후 주식시장의 전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당연한 답변이겠지만, 그 동안 보고 들은 경험상으로는 똑같은 정보를 두고 받아들이는 성향 차이와 실행 여부가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많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정보 집중력과 과감한 의사결정이 투자 성패를 가른다

는 것이다.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기를 바란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많은 정보(중요도나 관련성 여부를 떠나)를 가지고 있다 하여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정보 속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관련성이 적은 정보에 집중하다 투자판단을 그르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지나치게 자기판단을 과신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 이라는 것이다.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자기판단만을 과신하는 것 보다는 정보 집중력과 과감한 투자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가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고객들 중에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 더 이상 주가가 오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식형펀드를 기피하거나 약간의 수익에도 환매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본인이 생각하는(또는 느끼는) 경기라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체감경기이고, 이 체감경기라는 것이 주로 도소매의 내수 위주인 것을 간과한 것이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글로벌경제시대에 수출, 선진국경제, 환율, 금리, 부동산 경기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음에도 본인이 가까운 데서 느끼는 조그마한 요소를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하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갈 때까지 제대로 한 번 투자도 못하는 판단착오를 한 셈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가정주부나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만 해오던 사람들 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성장률과 부동산침체로 인한 시중자금의 증시유입 가능성 등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를 잡아 설명하면 주식투자를 해 본 경험은 없었지만 미래의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한 큰 추세를 믿고 과감하게 투자 결정하여 올 한해 50%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투자의 실패와 성공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다.

결국 투자성과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정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예는 본인이 가까이에서 느낀 단편적인 정보를 일반화하는 오류와 투자에 있어 위험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존심의 문제 등으로 객관적인 투자판단을 하지 못해 실패 하지만 주식투자 경험은 없었지만 핵심요소에 대한 심플한 판단과 과감한



의사결정으로 성공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투자의 성공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를 정확히 알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부자의 방을 여는 마지막 열쇠는 실행이라는 열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 보면 성공한 경우나 실패한 경우나 나름대로의 공통점이 보이는데, 재테크에 실패하는 공통된 사례 몇 가지 유형을 살펴 보자.

첫 번째는 빠른 성과만 기대하는 유형이다.

보통 주위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또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접해 들었을 때 마음은 급해지고 나도 빨리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조급함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투자의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둘째, 고민만 많고 정작 실행하지 않는 유형이다. 무턱대고 쉽게 결정 내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너무 오랜 시간동안 고민하다 결국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경우 역시 문제라 할 수 있다. 재무설계의 완성은 완벽한 계획이 아닌 실행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소비점검은 필요 없고 오로지 수익률 높은 상품만 고집하는 유형이다.

위로 남고 아래로 빠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유형이다.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는 흔히 소득을 늘리거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떠올리지만 달리 생각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누수지출을 줄이는 것 또한 돈을 모으는 방법이다.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지출 점검이 재무목표를 좀 더 빨리,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기억하라.

마지막은 수익만 보고 위험은 따지지 않는 유형이다.

기대수익이 높으면 당연히 위험이 높은데, 눈앞의 수익이 크다 보니 수익이라는 한 면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위험이 있다 한들 나는 아니겠지 하는 위험한 자신감

도 보이게 되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수익 뒤엔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 투자시기마다 떠올려야 할 기본사항이다.

재테크는 테크니컬한 요소보다 심리적인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꾸준히 재테크 성공을 하다가도 어느 한 순간 판단착오로 실수를 해서 재산을 한 순간 다 날려버린 일들을 주변에서 수없이 보게 되는데 또 그로 인해 급하게 재산을 모으려다 다시 힘들어진 경우도 있고...

'한 번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한 번 크게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재테크의 기본이요, 삶의 지혜인 것 같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재테크 실패의 유형에 대해 살펴 봤고 그럼, 이번에는 부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에릭 바인하커(Eric Beinhocker)가 쓴 '부의 기원(The Origin of Wealth)'이라는 책을 통해 그 답을 찾아 보자.

여러분은 부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는가?

이 책이 "부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서술을 시작하는데, 이 물음은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테마일 것이다.

바인하커의 결론부터 말하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존재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끝없이 변화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며, 여기에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얻으며 절약으로 일부를 비축하고 새로운 확대 생산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감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이지 않은가?

여기서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 소위 우파의 주장이고, 이에 반해 그 결과가 운 또는 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구조적 요소에 의한 결과라면 그것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 좌파의 주장이다.



세상은 불평등한 것 같으면서도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공평해져 간다는 생각이 우파의 기본적인 입장인 반면, 좌파적인 사람들은 반대라고 보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 잘 살고 못 살고가 정해진다는 우파의 주장이건 개인의 의지와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좌파의 주장이건 상관없이 적용하고 진화하는 자만이 살아 남는다는 것이 저자인 바인하커의 주장이다.

바인하커는 '가상의 설탕 섬'에서 난파된 사람들이 두 무더기의 설탕 더미를 찾고 소비하며 비축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의 결과를 이 책에서 소개하는데, 이 실험 결과에서 시뮬레이션 초기에는 평등한 조건이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이 소유한 설탕이라는 부의 분포는 크게 바뀌어 전체 부의 80%를 20%의 소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파레토의 분포와 흡사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파레토의 분포와 비슷한 것으로 유대인들의 상술의 기초가 되는 78 대 22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정사각형과 그에 내접하는 원의 관계에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100이라 한다면 원의 넓이는 78 정도이고 그 나머지 면적이 22라는 것이다. 또 공기 중의 질소와 기타의 비율도 78 대 22 정도며, 사람의 신체도 수분과 기타가 78 대 22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같은 원리로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과 돈을 빌리려는 사람도 78 대 22 정도의 비율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은행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고, 좋은 사업거리만 있으면 돈을 제공하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80 대 20'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비율인 것 같다.

바인하커는 '가상의 설탕 섬'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의 분포가 달라지는 과정을 순수 수렴·채집 단계와 거래 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어 관찰했으며, 부의 분포가 변화하는 원인을 물리적 환경, 우연, 유전적 형질, 적응력 등으로 소수의 사람이 많은 부를 차지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응용해 부익부 빈익빈의 원인을 외적인 환경 요인과 내적인 개인 능력 요인으로 간단히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평균 이상으로 좋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능력

있는 사람은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환경이나 능력 중 어느 하나가 좋지 않은 사람이 4분의 2쯤 있고, 환경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4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가 차츰 환경이 좋고 능력이 있는 소수는 여러 게임에서 이기게 돼 소비량보다 더 많은 부를 획득해 소비하고 난 나머지를 축적하게 되며 이에 비해 중간층은 자기가 소비할 만큼만 겨우 벌뿐이어서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나쁜 환경에 처한 능력 없는 사람은 자신이 소비할 만큼의 소득도 올리지 못해 자꾸 먹이를 줄여가다가 결국에는 도태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 상층의 부자는 축적된 자본으로 다음의 경쟁에서는 유리한 게임을 하게 돼 더 많은 부를 얻게 되어 결국에는 4분의 1(25%)의 소수 부유층이 사회 전체의 부 중에서 4분의 3을 지배, 파레토의 분포와 비슷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상층에 든 부자라고 해서 계속 부자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변신하며 진화하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다.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는 언제나 틈새를 찾고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부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수렵·채취 시대에는 부지런하며 민첩하고 힘이 센 사람이 재화를 선점했고, 교환 시대에는 어디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다른 장소에서 재빨리 구해 공급함으로써 차익을 누렸고, 생산 시대에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공급했고, 창조 시대에는 인위적으로 새로운 틈새를 만들어 수요를 능동적으로 창출함으로써 부를 창조해 나가는데,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틈새를 찾아내고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의 개인 간의 소득 차는 구조적인 것으로 다소는 줄일 수 있을지 언정 완벽하게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 만족을 평준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절대적 만족의 크기를 확대하는 노력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점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다.

시장친화적이고 실용적인 정부를 만들어 국민 성공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하는 대통령 당선자의 747 정책 비전하에서 우리도 재테크로 크게 성공하여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747점보기 안에서 일등석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 다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일등석이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남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심지어 점보기를 놓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길 권한다. 😊

